

## ‘생명의 숲→아파트 숲’ 우려 도심공원 녹지 축소 안된다

광주 마루공원 등 4곳 일몰제 민간개발사업 건설사들 대거 참여

10월 2단계 6곳 신청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에 광주를 비롯한 전국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도심공원이 아파트 건립 위주로 난개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들과 도시계획전문가들은 광주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열섬 현상으로 여름철 기온도 가장 높다는 점 등을 들어, 광주 도시의 허파이자 마지막 남은 녹지들이 아파트숲으로 조성되는 것만큼은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공원(4개)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지역 20개 건설사를 비롯한 전국 5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들 건설사들 중 8개 업체가 4개 공원 개발에 모두 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중복 지원이 많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총 95개의 의향서가 접수됐다.

개발 대상 공원별로 보면 서구 마루공원 개발에 32개사가 참여를 희망했으며 남구 송암공원 18개사, 광산구 수랑공원 23개사, 광산구 봉산공원에 22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1개 공원의 개발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제안서 제출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오는 9월 8일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개발 대상 도시공원들은 모두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한다. ▲마루공원은 지역 최대 상권인 상무신도심과 인접해 있고 ▲봉산공원은 영산강, 수랑공원은 황룡강 등 수변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은 광주의 지난

■ 광주 민간공원 개발 10곳



■ 1차(6월 4차) ■ 2차(10월예정 6곳)

해 여름 기온이 전국 최고수준에 달해 광주시가 ‘도 낮추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이 67%로 전국 최고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건립 위주의 개발계획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민간개발 특성상 공원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개발지역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유치할 경우, 도시공원이 도심의 쾌적성(Amenity)이나 환경성보다는 인근 주민들과 접근성 및 교통을 기준으로 개발되는 탓에 근린공원의 본래 기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지금은 택지지구에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넓은 도시공원들이 아파트나 개발시설에 의해 차단되거나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원을 깎 ‘숲세권’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고층 아파트 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다. 최근 수년 새 광주지역 곳곳에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속속 건립돼 도시의 경관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공원지역에서의 아파트 건립만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제안서 심사 위주의 개발사업자 선정보다는 환경 보존·공익성을 고려한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존 가치가 높은 숲은 최대한 살리고, 환경성을 고려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모두 25곳으로 면적만 11km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민간공원 10곳(958만㎡)에 대해 70%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으로 확보하고, 30%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우선 1단계로 마루·송암공원 등 4곳(132만㎡)을 개발한다. 나머지 중앙·중외·일곡·영산강대상·송정·신용공원 등 6곳은 오는 10월말 2단계 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정부 부처 내년 예산안 424조... 교육·고용↑ SOC↓

정부 각 부처가 총 424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일반·지방행정,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각각 9.0%, 8.9% 늘어나 증가 폭이 컸고 사회간접자본(SOC)은 15.5%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관련기사 2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

으로 2014년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 폭(6.0%)과 같은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국정과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경 부탁드립니다” 고개숙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30년 월드컵 남북한 포함 동북아 공동개최”

文대통령, FIFA 회장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중인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게 2030년 동북아 월드컵 개최를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예방한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2030년 월드컵을 한국과 중국, 일본, 북한 등 동북아 4개국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인판티노 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월드컵의 동북아 4개국 공동 개최 방안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 3월 처음 제기했다. 2026년 월드컵부터 참가국이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16개국 늘면서 이에 맞춰 공동 개최 추진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2026년 월드컵 공동 유치에 나선 흐름과 다르지 않다.

2030년 월드컵이 동북아 공동 개최로 치러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2018년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소속 러시아에서 열리고, 2022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산하 카타르가 개최한다. 48개국 체제 첫 월드컵인 2026년 대회가 북미 대륙에서 열린다면 2030년 월드컵이 동북아 공동 개최로 치러지는 건 FIFA가 정한 ‘대륙별 순환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2030년 동북아 월드컵 성사 여부는 결국 한국을 3개국과 북한은 물론 FIFA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청년 일자리 창출 국회가 함께 나서 달라”

첫 국회 시정연설 추경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은 재년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

회로 갈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 62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16·17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부 605-1115

#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목~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3일 특규슈 298,000원 부터  
4일 특규슈·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특규슈 3일 498,000원 부터  
규슈·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특규슈 4일 598,000원 부터  
규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임,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 사항: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인)

###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부산 출/도착

상 품 특 전: 투박강투어(목공예마을+도지마을), ICE 커피 한잔, 열대 과일, 밤 만시지 60분(별도), 노니비누 1개/인  
포 함 사 항: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차량, 알집프 식당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여행자보험, 스킨 마사지 1시간  
불포함 사항: 기사/가이드 경비(\$50/인·5일, \$60/인·6일) ※편의, 이동 중일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비용: 1만원, 국내항공 5인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료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기입 ● 예약시 계약서(세무서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기입 바랍니다. ● 경비업(관광,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